



# 주간 통일정세

2007-0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정상회담 후 첫 김정일의 공개활동: ‘아리랑’ 관람(10/10,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창건 62돌을 맞아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인 ‘아리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하였음
- 함께 참관 인사는 다음과 같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김격식 군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정각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국태·김중린·김기남 당 비서, 최영립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 나. 사상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교양 관련

<사상교양>

##### ● 체제단속을 위한 ‘자주’ 강조 (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북한)이 대외정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이념은 자주”이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아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예속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
- 그러나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와 인권, 다당제를 받아들이면 사회정치적 혼란과 민족간, 종족간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게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체제단속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차단에 부심

##### ● ‘부르주아風’ 차단 촉구(10/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부르주아 생활양식은 파국을 몰아오는 위험한 독소’라는 논설에서 “부르주아 생활양식은 사람들을 자기 개인밖에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동물적 존재로 만들며 돈밖에 모르는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며 “사람들의 지속적인 취미와 감정을 자극해 부화방탕한 길로 유인”, “사람들을 기형화 하거나 무지몽매하게” 만들거나 “청소년들을 부패변질”시키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을 촉구



<김정일에 대한 충성교양>

-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추종 강조(10/1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수해 속에서 주민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부터 구해냈다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장군님(김 위원장)만 계시면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
- **김기남, 사상도 운명도 김정일과 함께(10/11,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혁명투사 김혁 생일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 보고자로 나서 “앞으로 그 어떤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혁명 선열들이 이룩해 놓은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들을 계승 발전시켜, 곳곳이 이어 나가야”하며 “우리는 김정일 동지의 두리(주위)에 사상 의지적으로, 도덕 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장군님(김 위원장)의 선군 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기타 사상교양>

- **‘기본계급(노동자, 농민)’에 대한 관대한 징벌 강조(2007. 2호, 김일성 대 학보)**
  - 김일성종합대학 장성철 학사는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본 의 아니게 죄를 지은” 노동자, 농민 등 ‘기본 계급’ 출신에게는 관대하게 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본계급에 대한 관대한 징벌을 강조
- **김정일, ‘10대강성정치인’ 선정 보도(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 10대 강성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보도, 중앙통신은 중국 포털사이트인 텡쉰(騰訊·www.qq.com)의 ‘세계 10대 강성 정치인’ 선정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소개한 뒤 이 사이트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에 공헌한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했다”고 언급

다.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관련

- **예년과 비슷한 차분한 당 창건 기념 분위기(10/10, 연합; 조선중앙텔레비전)**
  - 노동당 창건 62주년을 맞아 당창건기념탑광장, 개선문광장, 주체사상탑 광장 등 평양시 곳곳에서 청년, 학생들의 경축 무도회가 개최되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는 북한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졌고 만수대언덕과 평양시 곳곳의 김 주석 동상 앞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이 놓이는 등의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 **통일의 새 국면 여는 중대계기로서 정상회담 강조(10/10,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대미비난 태도 견지

● **북한 ‘야만정권’ 발언 관련 미 부시 비난(10/12,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이날 ‘6자회담과 조미(북미)관계 진전의 휘방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 집권자는 지난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지명하여 ‘야만정권’이라고 걸고 드는 망동을 부렸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최고당국자의 시각이라고 본다면 수시로 변하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관점을 어떻게 평가하며 6자회담과 쌍무관계 발전의 관건인 호상(상호) 신뢰에 대하여 과연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어 “국제무대에서 대화상대자를 함부로 헐뜯은 미국 집권자의 몰체면한 언동도 묵과할 수 없다”고 천명

● **이란 핵문제 관련 미국의 무력해결 시도 주장(10/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8월 IAEA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위한 일정표’ 합의 관련, 이를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내디딘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세력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
- 또한 “군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란을 압살하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자는 것이 미국의 속심(속셈)”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이란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강조

나. 북·일 관계: 대일 비난과 쌍무 외교적 접촉 지속

● **‘납치문제’를 강조하는 현 일본 내각 비난(10/11, 노동신문)**

- “현 일본 당국은 납치문제에 정치적 명줄을 걸었던 ‘납치내각’(아베 내각)의 가련한 말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며
- “납치문제를 무슨 지렛대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전임 내각의 전철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조선(북한)을 테러지원



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그것은 일본 특유의 간특성의 발로"라고 비난

● 日 후쿠다 내각 대북정책 전환 촉구( 9/29, 통일신보)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신임 일본 총리와 새 내각에 대해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특히 아베 내각이 헌법개정과 대북 강경정책에 매달려 "단명내각"의 오명을 썼다면 "아베의 반공화국(반북) 적대시 정책으로 조(북)·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고 지적

● 北-日 중국 선양서 비밀접촉 모색(10/13, 연합)

- 북일 양국이 중국 선양(瀋陽)서 비밀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13일 낮 12시40분 평양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선양에 도착했고 아마다 시게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도 이날 오후 선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
- 북일 양국은 올해 9월 몽골에서 재개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 말 송 대사와 미네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양에서 극비 접촉을 가진 바 있음.

다. 기타 외교 관련

● 최고인민회의 의장, 시리아-이탈리아 방문(10/13,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3일 시리아와 이탈리아 방문 차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북한과 시리아는 1966년 7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과학 및 문화 협조 협정', '무역통상협정' 등을 맺는 등 친선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북한-이탈리아는 2000년 1월 수교

3. 대남정세

가. 대남관련

● 친북게시물 삭제 지시 비난(10/14, 조선중앙방송)

- 정보통신부의 친북 게시물 삭제 지시와 관련, "반통일 세력들은 인터넷 접속 차단에만 그치지 않고 보안법을 앞세워 일체 인터넷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제하는 데로 탄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



### 나. 남북교류

#### ●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전 보도(10/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남한)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사의 공동 주최로 고구려 무덤벽화 사진전시회가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개막됐다”고 보도

#### ● 김영남, 종전선언 참가국, 상황에 따라 결정(10/12, 연합)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2일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종전선언 참가국의 범위가 ‘3자 또는 4자’로 규정된 것에 대해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개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길게 말씀 드릴 것은 없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음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미·북 관계

#### ● 미 정부, 대규모 대북 식량·구호 지원 추진

- 북핵 6자회담이 불능화와 전면신고를 목표로 한 2단계 이행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직접 제공과 병원용 발전기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워싱턴 소식통들은 미국 기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식량 배포와 모니터링 업무를 맡겠다는 계획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음(10/7)
- 미 「국제개발처」(USAID)는 머시 코, 유진벨 등 미국 내 4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각지의 병원들에 발전기를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감

#### ● 갈루치, “북 경수로 건설, 핵협상 숨은 장애요인”(10/9)

-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우리는 북한과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했음
- 그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 건설 문제가 향후 핵협상 과정에서 숨겨진 장애요인으로 떠올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미 정부 내, 북·시리아 핵커넥션 놓고 논쟁 격화

-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공습(9/6)으로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커넥션 의혹 관련 정보를 놓고 미 행정부 내에서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10/10)했음
- 이 논쟁은 덱 체니 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내 강경파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북핵 협상파 간의 대립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미 정보기관, 핵실험 전 플루토늄 50kg 생산 가능성

- 「교도통신」은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 이전에 최대 5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10/10)했음
-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러한 분량의 플루토늄으로 적어도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핵 불능화 실무팀, 입북(10/11)

-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비롯해 8명으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실무팀이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음
- 이 팀은 1주일 정도 평양과 영변을 방문하며 불능화 준비작업을 한 뒤 후속팀에게 업무를 인계할 예정임

나. 중·북 관계

● 중, 대북 수출 9% 증가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가 지난 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증가했다고 보도(10/9)했음
- 올 1~8월 들어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약 8억6,23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22% 증가해 일본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중 외교부, “3자 정상회담서 중국 배제 불가”(10/9)

-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회담 주체인 3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이며 북한과의 조약 체결국”이라며 “동북아 정세와 평화체제 문제에서 중국은 당연히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음



#### 다. 일·북 관계

##### ● 일 정부, 대북 경제제재 연장 의결(10/9)

- 일본 정부는 이 날 각료회의를 열고 13일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기로 의결했음
- 조총련은 이에 반대하고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개최(10/10)하였음

##### ● 후쿠다 총리, 방북 가능성 시사

- 일본 언론들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10/10)

##### ● 북, 후쿠다 내각 ‘대화중시’ 평가(10/11)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후쿠다 야스오 내각의 대북한 관계에 관해 아베 신조 정권과는 달리 대화를 중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 일 정부, 납치문제 재조사 조건부 대북 인도지원 검토

- 「산케이」(産經) 신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쿠다 야스오 정권과의 대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임에 따라 대화를 위한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10/12)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 등에 응할 경우 지난 여름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 후쿠다 총리, “납치·핵·미사일 동시 해결후 국교정상화,”(10/12)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대북관계와 관련, “납치문제라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핵과 미사일이라는 안보상 매우 중요한 3가지 문제를 동시 해결해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 북·일, 중국 선양서 비밀접촉 모색하는 듯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선양에 도착(10/13)한데 이어 아마다 시게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도 이날 오후 선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음
- 이에 따라서 북·일 양국이 중국 선양에서 비밀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주변국 관련

### 가. 중국 관계

#### ● 17 전대, 개최(10/15~21)

-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는 15일 개막한 다음 일주일간 회의를 마치고 폐막(10/21)할 예정임
- 역대 당대표대회 관례에 따라 이번 17전대 폐막 다음날(10/22) 17기 1중전회를 열고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임

### 나. 일본 관계

#### ● 일, 중 위협 대처 위해 방위력 남쪽 이동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력의 중점을 남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10/9)했음

#### ● 게이단련(經團連),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발표(10/11)

- 일본 게이단련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아세안 + 6) 6개국을 경제통합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정식 발표했음
- 조만간 정부에 제안을 정식 제출할 방침임

### 다. 미·일 관계

#### ● 미·일·호주, 첫 합동 군사훈련(10/17)

- 미·일·호주 3개국은 안보분야 연대 강화의 일환으로 규슈 서쪽 해역의 동중국해에서 첫 합동군사훈련을 갖기로 했음
- 3국은 지난 6월 첫 3자 국방담당 각료회의에서 북한 등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는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 안전보장 분야에서 상호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었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